

# 여호수아의 긴 낮과 히스기야의 일영표 사건

글: 생명나무 청지기, 양승원  
강의: 김명현 박사

## 1. 여호수아의 긴 낮

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그치므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는 이 기적(수10:12-13)은 성경에서 이 같은 사건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묘사할 정도로 특이한 현상임에 분명하다(수 10:14). NASA의 컴퓨터가 여호수아 사건의 빠진 시간을 계산해냈다는 주장도 있었고 일식, 태양광선의 굴절, 구름이 태양을 덮은 일 등으로 이 초월적 사건을 해석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.

유명한 창조론자인 해리 림머(Harry Rimmer) 목사는 하버드 연구소의 피커링(Pickering)이 여호수아 시대의 빠진 하루를 찾아냈다가, 예일대학의 토튼(Charles Totten, <여호수아의 긴 하루>, 1890)도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하고 있다.<sup>1)</sup> 하지만 1997년 3월 25일, NASA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는 홈 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'그런 일이 없다'고 밝히고 있다.<sup>2)</sup>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'특정한 때의 시간'이 비었다는 것을 계산하려면 여호수아 사건이 일어난 때가 정확히 몇 년, 몇 월, 며칠, 몇 시였는지를 알아야하고 천지창조의 시기를 기준으로 날짜들을 세어야 한다.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사건에 대한 많은 해석들은 주관적일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정확한 천문학적 이해와 달력에 대한 이해, 본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.

다음은 [성경연대기의 과학적연구방법]의 저자인 유진 폴스티히와 성경과학연구소[소장 김명현 박사]에서 주장하는 해석이다.

모세의 죽음이후 30일간의 애도기간이 끝난 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였다. 아빕월(Abib) 7일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고 아빕월(Abib) 10일에는 요단강을 건넌 뒤 40년 만에 할례를 하였으며 이후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게 된다. 여리고성이 무너진 뒤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의 패배를 맞본 이스라엘은 제비뽑기로 아

1) Bernard Ramm, The Christian View of Science and Scripture, Eerdmans, 1954, 159

2) [http://imagine.gsfc.nasa.gov/docs/ask\\_astro/answers/970325g.html](http://imagine.gsfc.nasa.gov/docs/ask_astro/answers/970325g.html)

간의 죄를 밝혀내고 다시 아이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. 이후 간담이 서늘해진 기브온 거민의 거짓속임수로 화친한 여호수아는 아모리 다섯 왕의 기브온 거민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기브온을 구하고자 전쟁을 치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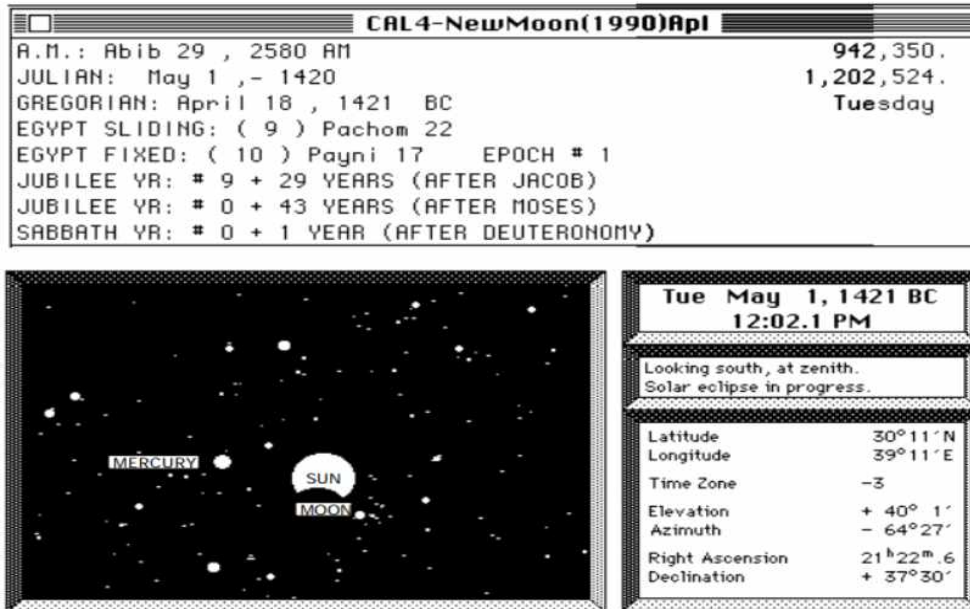


그림 1 여호수아가 본 하늘과 여호수아의 긴 낮

이날 정오에 **일식현상이 관찰된다**(천지창조후 2580년 Abib<Nisan>월 29일 /BC 1421년 4월 18일 화요일). 당시에 여호수아 긴 낮 사건을 일식과 관련짓는 이유는 일식현상에 따르는 기상변화로 거대한 우박이나 이상기후를 들 수 있는데 성경말씀 여호수아 10장 11절에 칼로 죽은 자 보다 큰 우박 덩이(**바라드-ברד**)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. 보통 일식현상 전후로 우박과 같은 이상기후변화가 있기도 하다.

정오가 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"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요청한다-make the sun and moon to go silent." 이는 전쟁의 확실한 승리와 진멸을 위한 요청으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**다맘(תמא)**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'**침묵한다**'라는 뜻을 갖고 있다(수10:12-14).<sup>3)</sup> 이는 하나님께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아모리 족속들에게 보이신 큰 이적으로 전쟁의 의욕을 상실케 하여 완전한 승리를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으로 보인다.

이를 볼 때 태양이 멈추거나 지구의 자전이 멈추는 등의 가능성으로 '여호수아의 긴 낮'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의 기록처럼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법칙이

3) 강병도 編, 카리스종합주석, 기독지혜사, 2003, 구(21), pp.586-588 참조

창조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일식과 같은 현상에 대한 성경기자의 표현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. 천문학 프로그램과 역법프로그램을 통하여 가나안 지역에 일어났던 일식이 가나안 입성 때쯤으로 관측이 되는데 이 때를 그날로 추측하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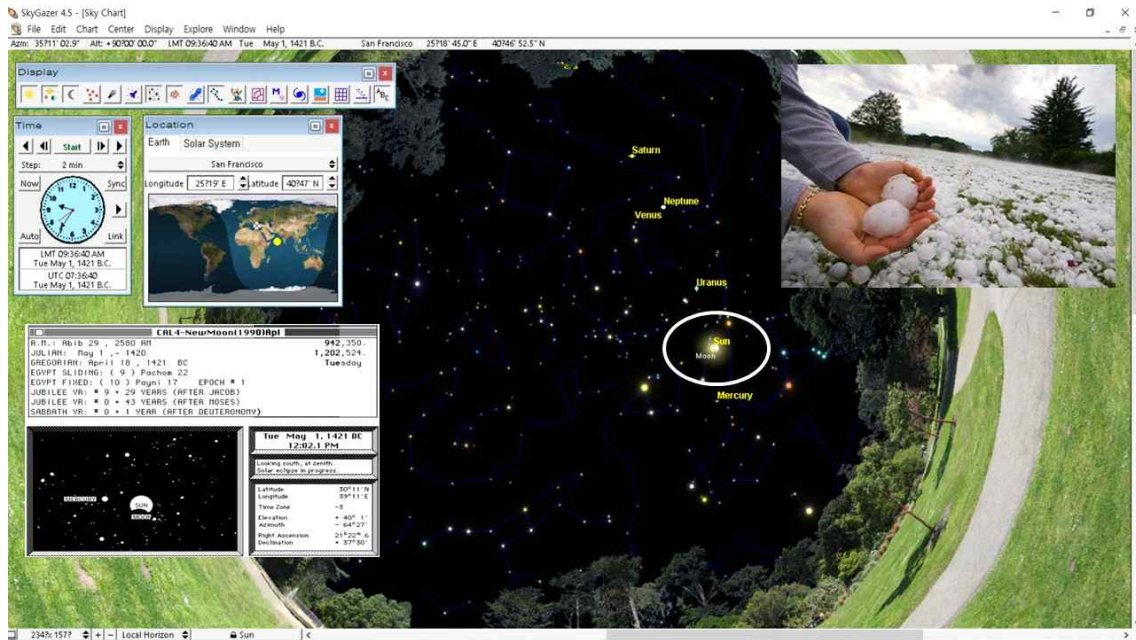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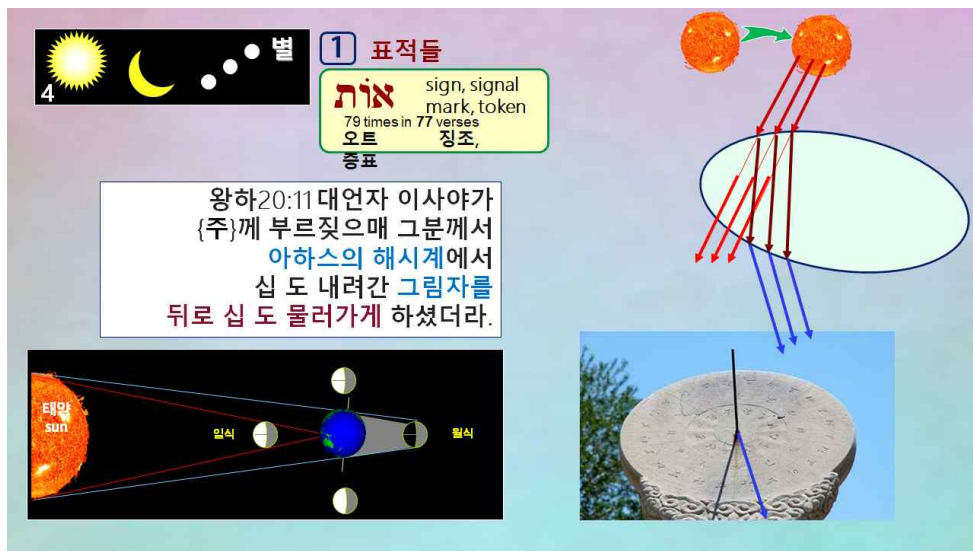
그림 2. 여호수아가 본 하늘과 여호수아의 긴 낮으로 추정되는 일식현상, 대형 우박

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(렘31:35-36)

## 2. 히스기야의 일영표 사건

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당시 천문학 관련 지식들이 언급된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있다.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병이 치유되고 삼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조는 무엇이냐고 묻는 장면이 나온다. 이에 대해 이사야는 해 그림자가 십도 나아가게 할 것인지 십도 물러가게 할 것인지 히스기야에게 직접 선택의 자유를 주는데, 히스기야는 그림자가 십도 나아가기는 쉬우니 뒤로 십도 물러가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말한다.

“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, {주}께서 나를 낫게 하사 내가 셋째 날에 {주}의 집에 올라가게 하실 표적이 무엇이리이까?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, {주}께서 친히 말씀하신 일을 하실 것에 대하여 왕이 {주}에게서 이 표적을 받으리이다. 그림자가 앞으로 십도 나아가리이까, 혹은 뒤로 십도 물러가리이까? 하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, 그림자가 십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**그림자가 뒤로 십도 물러가게** 하소서, 하거늘 대언자 이사야가 {주}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**아하스의 해시계에서 십도 내려간 그림자를 뒤로 십도 물러가게 하셨더라.**”(왕하20:8-11, 흠정역)



이사야는 히스기야가 표적으로 구한 대로 해시계의 해 그림자(일영표日影表)가 뒤로 십도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, 하나님은 아하스가 만든 일영표<sup>4)</sup>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물러가게 하였다(왕하20:11).

4) 아하스의 일영표(日影表해시계, sun dial)란 남유다 왕인 아하스에 의해 만들어진 해시계

히스기야 때에도 해 그림자가 십도 나아가기는 쉬우니 뒤로 십도 물러가도록 표적을 달라고 말한다.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표적으로 구한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은 아하스의 일영표(日影表)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물러가게 하였다 (왕하 20:11). 해가 뒤로 간 것이 아니라 해시계 해 그림자를 십도( $10^\circ = 40$ 분) 뒤로 가게 하였다는 것인데, 이것은 구름이나 특별한 상황, 즉 물이나 수증기와 같은 공중에 존재하는 매질이 이동하면서 굴절각도가 변하는 상황 등에 의하여도 가능하다. 물론 일식이나 천체의 특이한 움직임(혜성이나 운석)도 후보로 생각해 볼 수 있다. 태양이 역행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.



성경과학연구소[소장 김명현 박사]에서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 물이나 수증기와 같은 공중에 존재하는 매질이 이동하면서 굴절각도가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. 즉, 해 그림자가 뒤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, 굴절각도가 10도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태양과 매질의 거리를 통하여 가능하다. 또 다른 문제는 물과 같은 매질이 그 당시에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느냐 인데, 이는 수증기 층이나 투명한 구름층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이다.

위의 아하스의 해시계와 여호수아 시대의 긴낮 사건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충분히 자연현상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때에 일어났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 기록이다.

---

로 일영(해 그림자)의 이동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를 말한다. 아하스는 궁전 내부에 하루의 시간을 측정하는 12계단을 만들고 그 주위에 있는 기둥이나 물체 위로 해가 지나갈 때 생기는 그림자가 그 계단을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시간을 정하였다.